

# 포항 민주화운동연합의 활동상황



전 대구경북 민동련 사무국장 김병구

1916년생 전국인민노동조합 경북지회 기무장 대구로이주연 사무국장 및 부의장, 민주회합정치 국민운동본부 대구총회 상임대표, 포항지검지기연구회장, 민주사회실천 국민운동본부 대표, 서서우정당고문고

6월 26일, 전국적 대투쟁에서는  
포항 쪽도시장에서 포항시청까지 1만 5천여명의 인파가  
도심을 짝 메웠다. 그 물결이 한밤중까지 계속되면서  
포항에서도 배방공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1986년 2월 20일, 신민당지도부는 군사정권의 탄압을 의식하여 학생 및 민주화세력과 연대하기를 꺼려 신민당 단독으로 서울에서의 개헌헌판식을 수행하였으나, 경찰의 지지로 무기력하게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3일의 부산대회는 2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대경 민동련 간부들은 사무실에 모여 서울과 부산의 두 대회를 비교 평가하여 대구대회를 준비하였다. 노동분과위원장인 나는 "민주화운동세력이 대회 개최를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처럼 독자적 야당정치 기초가 취약한 대구에서는 야당에 맡길 수 없고, 그들과 준비를 함께 할 때 의견충돌 및 정보유출에 문제가 있으므로 준비는 민동련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하고 대회 행사시 정치권과 연대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야당 단독으로 실패하였고, 부산은 운동권세력이 공권력을 돌파함으로써 시민대중

이 20만이 운집할 수 있었던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우리 민통련이 대회를 주도하여 4월 25일, 시민과 학생이 참여한 10만의 군중이 중앙통 반월당 네거리를 점거하여 성공리에 대회를 개최하자, 인파에 놀란 독재권력은 무차별 최류탄을 난사하며 진압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돌멩이와 보도블럭을 나르며 시가전을 벌였다. 포항에서 올라온 수많은 노동자 동지들과 송라, 연일, 청하 등 읍면단위 지역 농민단체 동지들이 결합하여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선동을 한 김성오(포항 민주화운동연합 핵심간부)가 연행 구속당하였다. 우리는 대회 후 평가 과정에서 무엇보다 경북지역의 면면촌촌까지 노동자, 농민, 민주화세력의 참여를 이루어낸 것이 운동의 확산에 큰 힘이 되었고, 여기서 얻은 승리감이 일반 시민들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대구대회에 놀란 독재정권은 길들여진 언론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정치세력을 분열시켰으며, 야당은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격시위의 책임을 운동세력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비난성명을 냈다. 이에 격분한 민통련은 5월 1일 신민당의 기자회견적 작태를 반박하면서 민국련 탈퇴성명을 냈다.

대경 민통련은 현 국면에서 5월 3일 예정된 인천대회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의 힘으로 인천대회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의견을 모아 행동에 들어갔다. 나는 포항 민주화운동 핵심 인사 중 강호철, 전기표, 송정욱, 최주태, 운영대 등과 함께 5월 1일 인천 주안성당으로 가서 인천대회 준비에 참여하였다. 5·3인천 대회 때 10만 군중을 진두지휘한 사령탑이었던 이동가두 방송차량(리어카 위에 나무로 탑을 만들고 연단과 스피커를 달아 연사가 높이 올라타고 연설하면서 사람이 끄는 수레)을 당시 나를 포함한 포항 활동가들이 만들어 그날 행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차량은 나와 강호철이 끌고 선동연사는 고인이 된 안희대 동지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이 기회에 밝히고자 한다. 인천대회는 독재권력의 폭압적 공권력으로 이수라장이 되었고 배후에 불온세력이 있음을 날조하여 불온배라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29명이 구속되고 민통련 등 재야단체 43명이 수배되었다.

대경 민통련에서는 이강철 사무국장이 수배를 받아 활동이 비공개로 들어가고 내가 사무국장을 대행하여 탄압정국의 2기 대경민통련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후 전국 민통련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면서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나, 대경 민통련은 공신력과 중심력이 커지면서 간판은 없이 더 큰 사무실로 옮겨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1986년 10월 독재정권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 반제동맹 사건,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사건,

건국대 사건 등을 만들어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북한 금강산댐으로 서울이 물바다로 변한다는 가공할 만한 국민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린 학생까지 동원하는 기막힌 사건까지 만들어 냈다. 이 때, 우리는 전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통치하는 것이 독재권력의 최후발악이란 것을 감지하고 밑으로 다양한 대중을 민주화 세력으로 결집하면서, 핵심 활동가를 확대해 가는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포항에서는 지금까지의 비조직적 활동을 극복하고 공개적 반합법 단체를 구성 하고져 준비에 들어갔다.

1986년 11월 11일, 나는 그 동안 중심으로 함께 활동해 온 김상섭, 강호철, 김성오, 송영욱과 5명이 모여앉아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하고 각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고 냉수에 담아 나눠 마시며 형제애로 뭉쳐 개인보다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맹세하였다. 5명은 포항 민주화운동연합을 만드는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경주, 영덕, 청송,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 문화, 종교, 청년 학생 등 부문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크고 작은 모임과 투쟁을 펼쳐나갔다.

1987년 1월 15일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민주화운동이 고조되어 갈 때, 4·13 호헌조치로 발악을 하는 독재정권을 보면서 더 이상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총력전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란 결론을 내리고, 4·25 대구개헌결의대회 1주년을 맞아 포항시 창포동 성공회성당에서 포항 민주화운동연합이란 포항 유일의 민주통일민중운동 공개단체를 결성하였다.

## 포항 민주화운동연합 조직 기구

- 고 문 : 김홍길 목사, 김원로 신부, 백낙원 목사, 이재원 신부
- 지 도 위 원 : 정기복, 김병욱, 송정태, 김병하, 이삼준, 박인식
- 후 원 회 : 종수스님, 최휴일 목사, 강택규 신부, 정시환, 김두조
- 의 장 : 김병구
- 부 의 장 : 김광준 신부, 김상섭
- 운 영 위 원 : 김병구, 김광준, 김상섭, 강호철, 이상철, 김영철, 윤광기, 최주태, 윤현기
- 감 사 : 박일우 목사, 이상철
- 분 과 위 원 회 : 지역협력-김경호, 민주발전-오중상, 민생-김상섭, 농민-이상철,  
노동-김성오, 종교-윤광기, 여성-이경숙, 청년-김병하,  
사무국장-강호철, 정책-최주태, 총무-김일준, 조직-김성오,

총보-김병하, 사회-송영욱, 청년-임기도

- 지역조직 : 송라-전기표, 청하-김상하, 오천-김경호
- 타시군지역조직 : 경주-정태영, 청송-이무효, 울진-정일순 황윤길
- 활동가 : 송상덕, 이상준, 윤영대, 남옥희, 이영임, 이석태, 이동활, 윤신영, 임종석, 이상은, 변한식, 송정은, 박성혁, 김병일, 김덕권, 장영태, 권오만, 최영민, 김봉화, 손분녀, 김미화, 최익기, 한진옥, 서상순, 김영도, 김기철

우리는 최악의 탄압정국에서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없는 열악한 중소도시에서 반합법 공개조직을 결성하여 독재 권력과 투쟁을 선포하고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고, '영일만 합성'이란 기관지를 만들어 포항 전역에 2만부나 배포하였다. 그러기까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성대회가 임박해지면서 핵심 활동가는 옮겨다니며 잠을 자야 했고 마지막 날은 평범한 직장여성(김미화 현 쓰시협 사무처장)의 아파트에서 합숙을 하였다.

지역 활동가들 중 경찰에 요시찰로 낙인 찍힌 사람은 경찰의 등살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자택에서 기거할 수 없어 삭월세 방을 전전했고, 좁은 지방 도시에서는 주민 감시가 심하여 활동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나는 대경민통련 사무국장으로 전국회의에 참여하라, 대구경북 지역의 각종 행사와 투쟁을 하라, 포민련 동지들을 돌보라, 취약한 경제 여건 속에 눈물겨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사방이 검문소로 둘러친 포항 외곽을 나다닐 때면 한밤에 철로를 걷고 산을 오르고 차량 트렁크에 숨어 다니는 등 고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 활동에서는 전국에서 보내온 각종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제는 시민들도 불온유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권 선전물을 기다리는 시민도 많았으며, 유인물 배포과정에 후원도 해 주었다. 당시 포민련에는 고물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야간 유인물 수송, 배포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 오토바이에 훈장을 달아 주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었다. 또 우리 동지 중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새벽 2~4시 사이 유인물을 배포하다 못된 사람에게 붙잡혀 병신육갑한다는 모욕을 당하고 와서 모두 함께 울면서 "그래도 보복은 하지 말고 세상 잘못된 탓이니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자."고 다짐하기도 했었다. 야간 배포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개 짖는 소리인데 한번은 평가회의를 하며 '개는 이 나라 민주화운동을 가로막는 파쇼의 앞잡이다'고 규정하면서 웃기도 했다.

5월 27일, 역사적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6월 투쟁의 구심체가 대구경북에도 만들어졌고, 나는 상임대표로 선임되어 활동의 폭이 더욱 넓어져갔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역운동이 자생력을 갖추고 강화되어야 중앙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역운동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대구에서의 큰 싸움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역점을 두었다. 포항은 50만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지만 경주나 안동처럼 대학이란 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학생세력도 없어 참으로 힘든 곳이었다. 게다가 교회나 성당도 보수적이었다. 그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노력과 열정은 대단하였다.

6월 10일, 포항의 중심인 죽도시장에서 시위가 시도된 이후 6월 중 전국 동시다발 집회 때마다 포항이 빠짐없이 참여했고, 그 투쟁의 고리로 확대 발전해갔다. 데모대 1진이 연행되면 얼마 후 준비된 도심지역에서 2진이 다시 시도하였고, 처참하게 끌려가면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무진 애를 썼다. 그리고 드디어 포항에도 최루탄을 난사하지 않고서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없는 시위로 전개되었다. 최루탄은 시민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6월 26일, 전국적 대투쟁에서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포항시청까지 1만 5천여명의 인파가 도심을 꽉 메웠다. 그 물결이 한밤중까지 계속되면서 접거한 도로 한복판에서 전국의 진행상황을 속보로 알려 주고 시민 발언대에 용감한 시민의 연설도 이루어지는 등 포항에서도 해방공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 날을 통해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는데 포민련이 앞장서서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이한열 추모행사가 포항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히 치러질 때, 옆에서 감시차 지켜보던 공무원이 “김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인사하는 태도가 1개월 전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 동지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눈에 빛이 났다. 아, 민주주의여 만세!!

우리는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도 하고, 신경림 선생님을 모시고 포민련 수련회도 갔다. 7월이 되면서 포민련의 위상 점검과 지역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민중운동에 집중기로 했다. 80년 서울의 봄 정국 대전환기에 나타났던 수많은 노동자의 자생적 파업과 힘의 분출이 비조직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경험과 당시 이태복 동지 등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주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포항철강공단과 울산중공업공단과의 연결하는 노동운동을 모색하면서 포항지역 노동조합 결성에 총력지원을 했다. 하루에도 수차례의 포민련 사무실의 공식적 상담과 비공식적 상담을 감당해야 했다.

7, 8월 2달 동안 40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시도되었고, 8월 29일에는 민통련 문선대

공연과 백기완 선생 강연회가 포민련 사무실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첫 머리에 인사말을 하고 몰래 빠져나와 그동안 2만여 포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상담해 온 것을 모두 결합하여 노동조합 결성준비 모임을 구룡포 성당에서 가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해 둔 교회 버스를 이용하여 성당으로 이동했고, 서울에서 온 장명국 동지와 함께 밤 세워 포철노동조합 결성 준비를 완료했다. 이튿날 아침 포항시내에 들어와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밤새 포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호철 국장을 연행해 갔으며, 김상섭 부의장과 김영천 집행위원도 연행되었다고 했다. 우리 집에도 수색을 하고 나를 찾는다고 하여 그 길로 숨어 지내면서 포철 노조결성을 준비했으나, 노조결성 예정일에 태풍 글레디스가 몰아쳐 공단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준비요원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는 일천만원 현상금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그 길로 12월 대통령선거에도 숨어서 활동하게 되었다. 한번은 전국농민회 회장을 역임하신 윤정석 선배님을 만났더니 형사가 찾아와서 일천만원 현상금은 물론 더 보태어 줄 테니까 김병구 있는 곳을 말해 달라고 한 소리를 듣고 같이 있던 동료들과 한바탕 웃었던 적도 있었다.

11월초, 사무국장 강호철이 출감하여 포민련을 정비하던 중 안강성당에서 몰래 만나 대경민통련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민통련 비판적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동력을 가동하여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논의하였다. 당세가 열악한 지역이니 만큼 포민련이 주도적으로 경북동해지역을 담당할 것을 당부하고 나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수배자 신세로 대선에 참가하였다.

대선에 실패하고 여러 논의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13대 총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제정구, 이강철 등과 함께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고 지역운동의 구심체인 포민련과 논의를 거쳐 일천만원 현상수배자 이름으로 13대 총선에 한겨레민주당으로 출마하여 '17세 소년광부가 국회로 진출하다'는 선전물을 들고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바로 그날 구속되었다. 이후 출감하여 포민련이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노동상담소, 포항민주학교, 진보정치연합으로 분화되었으며, 지역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청년운동 등 각 부문 운동으로 확산 발전해갔다.

“글은 대경 민통련을 중심으로 발전한 포항 민주화운동연합의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함께 고난을 딛고 민주, 통일, 민중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의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지애로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